서문

'떠오르는 중국' (Rising China)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199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중국은 세계경제체제 내의 핵심 행위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해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큰 여건 상의 변화가 없는 한 미래에도 계속되거나 혹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릭스(BRICs) 혹은 빅스(BIICs) 등 신흥 경제강국을 논할 때에는 항상 중국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 역시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중국의 부상(浮上)이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중국의 경제발전을 넘어 세계질서의 재편 가능성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경제성장과 함께 순차적으로 추구하거나 표방해 온 가치들, 즉 '도강양회' (韜光養晦)와 '화평굴기' (和平掘起), 그리고 '조화세계' (調和世界)는 모두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 나름의 시각과 접근을 담고 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르는" 접근에서 평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국가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해 나간다는 접근으로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중국의 부상과 20세기 이후 세계질서를 주도해 온 다른 한 국가, 즉 미국의 위상 변화가 맞물려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2000년대 중반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이후 출간된 많은 저서들이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쇠퇴와 중국의 약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거의 불가역적인 것으로 평가해 왔다(Connors et al. 2005; Pupp 2009; Wallerstein 2007, 7-25 참조). 물론 중국의 국력

상승이 계속되더라도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 역시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국력이 지속적으로 신장되기는 하지만, 21세기와 같은 다문화 및 정보화 시대에 있어 미국의 강점은 여전히 유지되며, 미국은 여전히 세계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들 역시 '떠오르는 중국'에 못지않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Slaughter 2009, 94-113 참조).

그러나 어느 쪽의 의견이 더 설득력을 지니는가를 따지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무의미하다. 고도의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그리고 미래에도 그 추세가 유지될 것이 분명한 21세기의 시공간에서 미중의 관계를 단순한 일방의 승리나 일방의 하락으로 설명하기에는 분명히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그러한 분석이 단순한 하드파워의 증강 추세에만 의존한 것이라면, 1990년대 경제력에 관한 한 21세기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본에 대한 예측 실패를 미래에도 또 한 번 반복할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중관계의 미래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미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했으면서도 동시에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과 일본에게는 깊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10년 내외의 시점을 중심으로 미중관계가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를 전망하는 일은 한국의 미래전략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의 "미중관계 2025" 프로젝트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책은 그 노력의 결과물이다.

"미중관계 2025"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의 단계적 질문을 던지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2025년을 전후한 시점의 미중관계는 어떠한 양상을 띨 것이며, 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2025년의 미중관계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어떠한 함축성을 지니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對) 미중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 이 책은 세 가지 의문점 중 주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 노력한 결

과이다. "미중관계 2025" 프로젝트는 8명의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미래 미중관계를 결정할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중간 중간의 연구 결과들을 각 분야 연구자 전원과 자문 그룹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책을 발간함에 있어 무엇보다 특기할 만한 점은 사전에 공통의 결론을 설정하거나 예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의 미중관계와 관련하여 8명의 연구자들이 진행한 전망이나 분석 내용들이 놀랄만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진행된 연구들은 2025년의 미중관계가 단순히 어떤 특정 국가의 부침(浮沈)을 결정하거나 더 먼 미래(2040년이나 2050년)의 세력전이를 예고하는 차원을 넘어, 양자 상호 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책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미중 간의 미래 안보관계를 다룬 부분들에서 이미 이러한 메시지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주형민은 "미중의 상호인식 : 협력자 혹은 경쟁자"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미래 미중이 각각 상대를 어떠한 대상으로 인식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형민은 미중관계가 국제정치의 역학구조(일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 등)와 비구조적 요소(이념, 가치, 현안 등)에 의해(안보 및 경제의) '이중갈등자'에서 '이중협력자'에 이르는 다양한 이론적 스펙트럼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2025년 중국 경제가 미국의 약 70퍼센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본 전망을 바탕으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세계정치의 역학구조가 미중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로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미중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는 미중관계를 중립적 혹은 적대적 방향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현재 나타나는 양국 간의 '경제중심 전략적 동반자' 인식 정도가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상호인식은 ① 인권, 민주주의, 주권 등 '가치'에 관한 양국의 근본적인 시각차, ② 무역수지 적자, 환율조정, 대만문제, 자원확보 경쟁 등 다양한 '갈등현안'

에 의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큰 틀에서는 불균형적 양극체제라는 국제정치 '구조'가 미중관계를 중립적 혹은 적대적 방향으로 이끌 것이지만, 양국의 구체적 상호인식은 가치나 다양한 현안과 같은 '비구조적 요소'에 의해 얼마든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주형민의 연구는 2025년 미중의 상호인식이 중립적 혹은 대립적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이것이 극단적 대결의 관계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미래 미중 군사관계를 전망한 이동선의 연구 역시 이러한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국가들은 안보이익과 자신이 처한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전략목표(strategic goal)를 설정하고 추구하는데, 이는 크게 ① 상대방을 압도하거나 굴복시키는 패권정책, ② 국제체계 내에서 리더십을 행사함으로써 영향력을 확장하는 리더십 정책, ③ 한 국가나 국가군이 우월한 국력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는 균형정책, ④ 위협적인 국가와 타협하여 대립과 충돌을 피하는 타협(편승)정책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두 국가 간 전략목표의 조합이 〔패권정책-패권정책〕, 〔패권정책-리더십정책〕, 혹은 〔패권정책-균형정책〕으로 나타날 경우, 양자관계는 전면적 경쟁관계로 귀착된다. 만약 〔리더십정책-리더십정책〕, 〔리더십정책-균형정책〕, 〔균형정책-균형정책〕의 조합이라면 제한적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반면, 〔타협정책-패권정책〕, 〔타협정책-리더십정책〕, 〔타협정책-균형정책〕, 〔타협정책-타협정책〕의 조합이 이루어지면 국가관 관계는 협력적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동선은 미국과 중국의 상충하는 안보이익이 향후 15년 동안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것이 양자 간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그의 연구는 중국이 1970년대 말에 개혁을 시작한 이래 놀랄 정도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1990년대부터 군사력 증강에도 꾸준히 투자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2025년까지 아시아에서 잠재적 패권국(potential hegemon)의 위치에 오르기에 충분한 국력을 갖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

한 그는 2025년 미국의 안보전략을 지상군의 투입을 피하고 해 · 공군력과 핵전력에 의존해 리더십을 행사하는 전략(역외 리더십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즉 이 시기 미국에게는 제1의 관심 지역으로 떠오를 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 해양세력권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적 전략목표가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선의 연구는 2025년 미중 간에는 전반적으로 온건한 경쟁관계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지역리더십 정책과 미국의 역외리더십 전략이 맞물리면서 중국과 미국은 아시아에서 각자의 세력권을 형성할 것이다. 우월한 육군력을 갖춘 중국은 러시아와 인도를 제외한 인접 대륙지역에서, 해 · 공군력 면에서 우세한 미국은 해양지역에서 각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양국이 지역패권을 장악하려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인 국력경쟁은 피할 수 있을 것이지만, 세력권이 만나는 한반도와 같은 회색지대와 양국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해상교통로를 둘러싸고 경합하며 제한된 경쟁에 휘말릴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중국이 전력을 효과적으로 투사하지 못해 미국의 리더십 하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더 먼 미래(예를 들어 2050년)에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면 미중 양국은 전면적인 국력경쟁에 휘말릴 수도 있으나, 이 역시 그리 손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 이동선의 전망이다.

이 책에서는 경제 분야에 관해서도 비슷한 전망들이 소개되고 있다. 김동훈은 "2025년의 미중 무역관계"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를 통하여 미중 간의 무역불균형 시정을 둘러싼 힘의 역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관계에 있어서 무역불균형(trade imbalances)에 대한 시정은 대부분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이에 대하여 미국의 동맹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해법을 택하는 조정과정(adjustment)을 거쳤다고 보고 있다. 즉 미국은 무역장벽과 환율절상 압력을 통해

대외 무역적자로 인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타국에게 전가함으로써 미국 국내경제와 세계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김동훈은 2025년까지의 시점에서 미국이 새로운 무역 불균형 원인으로 등장한 중국에 대해 어떠한 대응전략을 택할 수 있고, 중국은 과연 이에 어떻게 반응하며, 양자간 무역관계의 최종적 결과는 어떠할 것일까를 전망하였다.

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미국의 조정 요구를 중국이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재정지출을 줄이고 이자율을 높이는 자구책을 시행함으로써 조정비용을 자신이 떠안는 상황"과 "미국이 자신들의 조정 요구를 중국이 어차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애초에 중국에게 아무런 조정 요구를 하지 않는(조정비용은 미국이 담당하는) 상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았다. 이는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제재라는 수단의 신빙성이 중국에 대한 한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가속화된 생산세계화와 분업화로 인하여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는 오히려 미국에서 치명적일 수 있고, 중국의 달러 자산이 미국의 경제제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그의 연구는 2025년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 또한 현재처럼 갈등적일 가능성이 크지만, 20세기의 세계적 무역불균형 조정 과정에서 승리했던 미국은 더 이상 새로 부상한 무역파트너인 중국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어느 일방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동훈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구조조정은 어쩌면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쇠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중국의 비협력으로 인하여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은 결과적으로 중국에 덜 의존적이 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국은 국내외 정치적 이유로 세계적 불균형 해소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불균형 시정 노력(내수 확장, 국내 성장 동력의 발견)을 미룸으로써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외형적으로 무역 갈등에서 승리한 중국이

스스로 '성공의 희생양' (victim of its own success)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용욱의 연구는 미중관계의 경쟁구도를 국제금융 부분, 그것도 "위안화 국제화와 2025년 미국과 중국의 기축통화의 정치" 측면에서 보고 있다. 그가 국제 기축통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패권(hegemony)을 차지하였던 국가의 쇠락 이후 세계경제가 다극화 되었을 때 기존의 국제기축통화 시스템이 상당한 변화 압력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즉 기축통화의 변화는 곧 패권 변화의 지표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국제 통화질서 재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용욱은 위안화의 국제 기축통화로의 부상 여부는 중국의 능력 및 의지에 의해 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용욱의 연구는 미래 강대국으로서의 리더십, 경제력, 통화의 신뢰성 등의 지표가 2025년에 중국에 비교적 긍정적일 것이지만, 여전히 위안화가 달러화를 대체할 정도의 능력(capacity)은 갖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의지(willingness) 측면에서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듦으로써 "진정한 강대국 달성"이라는 정치적 이익과, 외환보유고 안정성 등의 경제적 이익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위안화의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됨으로 인해 생기는 환율 불안정의 비용, 무역적자의 감수, 높은 수준의 자본거래 개방이 가져올 국내정치적 부담 등을 감수해야 한다. 이용욱은 이를 고려할 때,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① 위안화의 적극적인 기축통화화 정책을 통한 달러화 대체, ② 달러화체제 아래서 위안화의 동아시아 지역통화화, ③ 달러화체제 아래서 일본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동아시아 단일통화 체제 추구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그는 2025년의 국제통화질서는 달러화체제 아래서 위안화가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통화로 작동하는 성격인 "국제와 지역 분업체제"로의 이행 가능성(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대안)이 가장 높다고 전망하였다.

"미중관계와 동아시아 : 경제 아키텍처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장을 통해 손열은 2025년 미중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아키텍처(경제협력 구도)를 놓고 어

떠한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분석, 전망하였다. 이 연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구도에 주목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동아시아는 이 시기 세계경제의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는 무역과 투자, 생산의 측면에서 경제주체 간 상호의존이 깊어지면서 시장통합이 진전되고 있다. 셋째, 그 시장통합의 중심에는 중국이 자리할 것이다. 넷째, 기존의 패권국 미국은 세계경제의 활력을 제공하는 동아시아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중의 경쟁이 곧 세계적 차원에서 양국의 협력 및 경쟁 구도에도 그대로 투영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협력 구도는 멤버가 될 수 있는 '진입조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선단'(船團, convoy)모델로, 이는 지역 내 구성원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모델이다. 아세안(ASEAN)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둘째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멤버만을 받아들이는 '클럽'(club) 모델로, 유럽연합(EU)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손열은 2025년의 시공간에서 미중이 주도하는 어떤 지역 경제협력구도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지역 국가(특히 한국과 일본)들이 서로 다른 경제협력구도에 복수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선택의 고민을 하는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을 바짝 끌어안고 아세안+3(ASEAN Plus Three: APT)를 주(主) 지역제도로 활용하면서 한중 FTA와 한중일 FTA를 통해 일본과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에서 중립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반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부활시키려 노력하고 그 핵심수단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이 주변국의 견제심리를 민감하고 현명하게 받아들여 소프트파워를 강조하는 대외전략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간다면 중국이 주도권을 지니겠지만, 이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2025년의 동아시아는 중국의 아키텍처와 미국의 아키텍처가 공존, 경쟁하는 '제도적 균형'(institutional balancing)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중 양측이 일방에 대해 분명한 우세를 점할 수 없는 2025년의 상황은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적 정서로는 '매력'으로 불릴 수 있는 소프트파워(soft power)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소프트파워 시장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매력" 제하에서 진행된 김정의 연구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 국가의 소프트파워, 즉 매력이란 타국이 느끼는 감화의 성질에 따라 그 힘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소프트파워는 그 속성상 공급자 중심의 권력개념인 하드파워와는 달리, 수요자 중심의 권력개념이다. 소프트파워를 통한 관계에서 소프트파워를 행사하는 지도국과 이를 수용하는 추종국은 행위와 구조의 두 차원에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한다. 첫째, 행위의 차원에서, 지도국과 추종국은 '정책생산자'와 '정책소비자'의 관계로 만나 상호작용한다. 이 관계 하에서 추종국은 지도국이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호감 혹은 비호감의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국가적 매력을 평가한다. 둘째, 구조의 차원에서 지도국과 추종국은 '가치설정자'와 '가치순응자'의 관계를 형성한다. 구조 차원의 관계에서 추종국은 지도국이 "어떤 국가인가"를 묻고 그 존재에 대한 신뢰 혹은 불신을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국가적 매력을 평가할 준거를 마련한다.

김정의 연구는 21세기에 접어들어 중국이 하드파워 차원의 국력을 신장하면서 소프트파워 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도전도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 김정은 2025년 중국이 국가적 매력 차원에서 미국과의 간극을 크게 좁힐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미중이 소프트파워 시장에서 정책생산자로서 온건한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우선 중국은 추종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가치에 반발하는 정책을 전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현존 소프트파워를 대체할 가치체계를 제시하면서 미국과 극

단적인 가치 경쟁을 벌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지나치게 정책적 위선의 정도를 높이지 않으며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한, 2025년 소프트파워 시장은 정책 차원에서 두 나라의 온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김정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및 환경과 같은 범 지구적 쟁점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상호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우선 환경의 영역에서는 단순한 갈등이 회피를 넘어 제한적 협력의 가능성도 예측된다. 신범식은 "환경의 국제정치와 미중관계의 미래" 제하 연구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는 환경 분야가 국제관계에서 강대국간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이슈 영역으로 떠오르는 추세를 지적하면서,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변화대응체제 형성을 위한 지구적 노력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중심의 기후변화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기후변화대응체제 형성을 위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인가를 2025년의 상황 하에서 전망하고 있다.

신범식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과거 "거절의 동맹"(상대방이 제기한 주장들을 무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세력을 규합하는)이 "실천의 동맹"(alliance of implementation)으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25년경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는 기후변화대응체제의 구축을 둘러싼 환경 국제정치 분야에서 양국의 향후 관계를 놓고 ① 어느 한 국가의 기술적 우위(친환경 기술 등)에 의해 주도권이 결정되는 시나리오, ② 국가주의적 안보 고려와 패권경쟁에 입각한 양국 간 갈등 시나리오, ③ 미중 양국이 기후변화 분야와 관련된 분쟁 가능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시나리오 등을 상정하였는데, 이중 세 번째의 가능성에 특히 주목하였다. 2020-2030년을 전후하여 개도국들의 탄소 배출이 선

진국들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도국들은 어떤 식으로든 감축(mitigation)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에 적응(adaptation)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양국의 소프트파워 및 하드파워 모두를 강화해가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구도에서는 기후변화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수렴되면서 미중 간 합의와 협력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신범식의 설명이다.

"미중관계 2025 : 에너지자원 영역" 제하의 연구에서 정주연은 석유자원과 관련된 미중 양국의 이해와 전략을 "경제"(안정적 시장가격)와 "정치"(접근성 확보)라는 두 가지 차원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그녀는 에너지자원의 영역에서 2025년까지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변함없이 석유일 것이며, 이의 확보를 둘러싼 경쟁 역시 미중관계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주연은 2025년의 시공간에서 미중 양국 간에는 석유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둘러싸고 협력보다는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양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는 두 가지 결정적인 변수 때문이다. 두 변수 모두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상대적 취약성을 가졌다는 현실과 그 현실이 2025년까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다. 첫 번째는 미국에 비해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유 취약성'(oil vulnerability)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미중 갈등으로 석유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유가가 불안정해 질 경우, 경제적으로나 국내정치적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더 취약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석유 해상수송로에 있어서 미중 군사적 불균형이 2025년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8년을 기준으로 중국 총 석유수입의 80퍼센트가 통과하는 말라카해협에서 2025년까지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의 해군력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주연은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미중 양국은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자원 영역에서 직접적인 갈등은 피하면서 주로 산유국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각각 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 예측한다.

각 연구의 후반부에서 저자들은 미국과 중국 양측이 2025년 혹은 그 이후의 시대에 대비하여 현재부터 이미 어떠한 예측적 대응(anticipatory reaction)을 보일 것인가를 일부 담아내려 노력하였다. 이에 대한 본격적 예측은 또 다른 연구과제가 될 것이지만, 이미 현실 세계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보다 강경한 대(對) 중국 외교노선을 표방하면서 출발하였지만 동시에 경제적 갈등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임기 후반의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QDR) 2006년도 판에서는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 (responsible stake holder)로 규정하였다. 반면, 부시 행정부에 비해 중국과 상대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지향할 것으로 평가되었던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의 QDR은 중국 군사력 증강의 투명성 문제를 언급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이후의 미중관계가 더욱 경쟁적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지만, 이러한 미국의 중국 인식은 '떠오르는 중국'을 불가역적인 추세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예측적 대응이 협력이나 갈등의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들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편차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2025년 양국 간의 관계가 상대방에 대한 극복 혹은 우위의 확보로 귀결될 수는 없으며, 또한 그래서도 안 된다는 점들을 암시하고 있다. 즉 2025년은 단순히 "아직 일방이 상대방을 추월하지 못한" 혹은 "일방의 부상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을 확인하는 시점이 아니라, 미중이 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더 나아가 동아시아 및 세계 차원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새로운 협력과 공존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 혹은 협력이라는 양분법을 벗어난 협력구도는 미국과 중국 양자의 관

점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중국을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미래에도 지속하기를 원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2025년의 미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두 당사국 이상의 핵심적 관심사이다. 미래 동아시아 공간에서 가능한 미중관계 시나리오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안보/전략적 관계 구도의 측면에서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예상 가능한 미래 동아시아 역학 구도

경제적 상호의존	안보/전략적 관계 구도: ← 갈등	안보/전략적 관계 구도: 협력 →
↑ 높음	C 21세기형 약육강식	B 동아시아의 평화시대 (PAX NEA)
↓ 낮음	D 불안하고 위험한 동아시아	A 변환의 지속

첫째는 '변환의 지속'으로, 현재와 같이 경제적 상호의존이 일정수준 이상 존재하는 단계에서 갈등과 협력이 사안에 따라 병존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의 활력 자체를 갉아먹음으로써 미중 공동의 퇴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동아시아의 평화시대'로서 확장된 경제적 상호의존과 안보/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중 관계가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공동의 번영을 이루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현재보다 낮아지고 안보/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구도로, 이는 '불안하고 위험한 동아시아'를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은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은 증대하면서도 안보/전략적 갈등은 심화되는 시나리오로

이는 양자가 상대방을 극복의 관계로 보고 전쟁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객관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평화시대'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중에게도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상대방의 정책에 대한 적절한 수용과 양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 손쉬운 것은 아니다. 한국의 정책적 비전과 선택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일견, 미국 혹은 중국과의 국력이나 세계적 영향력의 차이라는 점에서 판단할 때 한국이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중에 비해 양자관계의 제3자적 위치에서 객관적 평가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 역시 동시에 존재한다. 현재부터 한국이 얼마만큼 미중이 공감하는 공통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역시 2025년 미중관계를 결정짓는 한 변수가 될 것이며, 이 변수가 2025년까지 얼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지가 한국의 미래와도 밀접한 연관을 지닐 것이다.

2011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차두현

■ **참고문헌**

Connors, Michael K., Remy Davison and Jorn Dosch, eds. 2005. *The New Global Politics of the Asia-Pacific.*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Pupp, Terrence Edward. 2009. *The Future of Global Relations.* New York: Palgrave & Macmillan.

Slaughter, Anne-Marie. 2009. "America's Edge: Power in the Networked Century." *Foreign Affairs* 88, 1: 94-113.

Wallerstein, Immanuel. 2007.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es* XIX, 3: 7-25.